

다니엘의 책 - 제35번

예언적 틀의 공개: 윌리엄 밀러의 통찰과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황폐하게 하는 세 가지 권세

Jeff Pippenger
2023-12-30

1798년 '끝의 때'에, 다니엘서 가운데서도 특히 올라이 강으로 표상된 그 이상이 봉함이 풀렸다. 그 이상은 1844년 10월 22일에 조사심판이 시작됨을 선포했다. 그 진리의 근거가 된 구절은 다니엘서 8장 14절이다. 그 기별의 봉함이 풀렸음을 인식하도록 택함받은 사자 윌리엄 밀러는 그 이상과 관련된 모든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했다.

밀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성경 안에서 확인되고 확립된 몇 가지 예언 해석의 규칙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규칙들은 정식화되어 '윌리엄 밀러의 해석 규칙'으로 명명되었다. 그 규칙들은 영감으로 승인되었으며, 일요일 법령 때 집행 심판의 시작을 선포할 자들이 사용할 규칙으로 지목되어 있다. 밀러는 성경 연구를 성경의 처음에서 시작했고, 그때 살피고 있던 내용을 이해하게 될 때에만 다음으로 나아갔다고 증언했다. 이런 접근으로 볼 때, 그가 1844년에 성취되었다고 식별하게 될 메시지와 관련하여 밀러가 처음으로 인식한 시간 예언이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였던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영감은 우리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밀러의 마음을, 가브리엘이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 그리고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마음을 인도했던 것처럼 인도했음을 알려 준다. 이는 가브리엘이 사탄이 상실한 직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브리엘의 직무는 사탄의 본래 이름인 루시퍼에 의해 상징되었는데, 그 이름은 빛의 전달자라는 뜻이다. 가브리엘은 예언의 빛을 밀러에게 가져왔고, 그는 그 빛에 순종하여 1844년 10월 22일 조사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했다.

돌이켜 보면, 윌리엄 밀러의 사역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은,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그의 작업에 열쇠가 되었던 예언의 말씀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열쇠들 중 하나는 예언적 적용에서 하루가 1년을 의미한다는 그의 인식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발견한 예언의 계열들을 배치하고 서로 맞추기 위해 사용했던 예언적 구조였다. 그 구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에 황폐를 가져온 두 가지 사탄적 세력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밀러의 모든 발견은, 고대 이스라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연이어 짓밟아 온, 이교주의에 이어 교황주의가 전개해 온 역사를 나타내는 그 예언적 구조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예언적 구조는 그가 1844년 10월 22일을 심판의 개시로 확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 진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예언적 역사에서 이교와 교황주의를 뒤이은 세 번째 박해 세력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 진리를 볼 필요는 없었다. 그의 일은 1844년 10월 22일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박해 세력에 대한 빛은 그 날짜 이후에 봉인이 풀릴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교 로마에 이어 교황 로마로 이어지는 두 황폐케 하는 세력의 구조에 그의 예언적 이해를 맞추는 과정에서, 그는 다니엘서에서 "the daily"로 번역된 단어가 이교, 곧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는 점을 이해했다. "the daily"로 번역되는 "tamid"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서 다섯 번 사용된다. 그것은 항상 밀러가 교황권을 나타낸다고 올바르게 이해했던 상징과 함께 사용된다. "the daily"와 연관되어 항상 나타나는 교황권의 상징은 두 가지 상징으로 표현된다. 어느 쪽이든 두 상징 모두 교황권을 지시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이 "the daily"로 번역되는 "tamid"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교황권의 상징과 함께, 그리고 그 상징에 앞서 사용되었다. 다니엘서의 "the daily"에 대한 밀러의 이해는, 이교주의에 이어 교황주의로 이어지는 두 황폐케 하는 세력을 기반으로 그가 보았던 구조의 기초가 되었다. 다니엘서에서 "the daily"를 이교로 규정한 밀러의 해석은, 1888년에 시작된 재림주의의 제2세대에서부터 재림주의 내부에서 거대한 논쟁이 될 운명이었다.

1844년 10월 22일에 대한 이해의 한 구성 요소로서 밀러가 발견한 첫 번째 예언적 진리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였으며, 그것은 1863년에 거절된 밀러의 확립된 진리들 가운데 첫 번째였다. 그 거절로 라오디게아의 광야를 방황하기 시작한 재림주의 제1세대가 시작되었다. 제2세대는 1888년 미니애폴리스 총회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반역의 여파 속에서 밀러가 "the daily"를 이교로 규정한 것을 거부하는 사탄적 역사가 1901년에 시작되었다. "the daily"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the daily"에 대한 밀러의 올바른 견해에 반대하여 추진되던 견해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 의해 전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던 그 여선지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폐기되었다. 완전한 거절은 1931년경 제3세대에 일어났다. 제3세대는 1919년 성경 회의 직후 W. W. Prescott이 쓴 "The Doctrine of Christ"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다. 1919년에 제3세대가 시작되어 1957년 "Questions on Doctrine"이라는 책이 출판될 때까지 이어졌다.

밀러의 사역이 하박국의 두 표(1843년과 1850년 개척자 도표들) 위에 확립되고 분명히 제시된 후, 주께서는 이교주의와 교황주의에 뒤이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박해할 또 다른, 곧 세 번째 황폐케 하는 세력이 있다는 진리를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교를 통하여, 그리고 이어 교황권을 통하여, 사탄은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을 땅에서 지워 버리려는 노력 가운데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였다. 이교도들과 교황주의자들은 같은 용의 영에 의해 움직였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체한 교황권이 더 위험하고 잔혹한 원수였다는 점에서만 달랐다. 로마 가톨릭주의라는 도구를 통하여 사탄은 세상을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교회라 자처하던 무리는 이 미혹의 대열에 휩쓸려 들어갔고, 천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용의 진노 아래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교황권이 그 힘을 빼앗겨 박해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고 같은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계속해 나갈 새 권세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교회와 율법에 맞서 전쟁을 벌일 마지막 권세는 어린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었다. 그에 앞선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왔으나, 이것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는 그로 상징되는 나라가 평화롭게 등장함을 나타낸다. '어린양 같은 두 뿔'은 그 두 가지 근본 원칙, 곧

공화정과 개신교로 표현되는 미합중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 이 원칙들이 우리 국가의 힘과 번영의 비결이다. 처음으로 아메리카 해안에서 피난처를 찾은 이들은 교황주의의 오만한 주장과 왕정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에 도달한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시민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라는 넓은 기초 위에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시대의 징조, 1899년 11월 1일.

밀러는 세 번째 박해 권세를 보지 못했으며, 이런 이유로 그의 체계는 불완전했지만 그의 사역을 수행하기에는 완벽하게 적합했다. 화이트 자매는 밀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자였으며, 그의 사역에서는 엘리야와 세레 요한으로, 그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에서는 엘리사로, 그의 죽음에서는 모세로 예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스러운 역사에서, 천사들이 무덤 곁에서 그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는 영감된 논평이 붙은 이는 드물지만, 밀러에 대해서는 그러한 논평이 있다. 그가 세움을 받은 시대의 역사로 인해 그의 사역이 제한을 받았다는 사실은 밀러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참된 빛 아래에서 고려하려 한다면 반드시 인정해야 할 필요일 뿐이다.

밀러는 천사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 이교주의와 그 뒤를 이은 교황주의라는 두 황폐케 하는 권세에 기초한 예언적 틀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두 권세가 이론 황폐 이후의 역사를 지적하는 예언들은 밀러에 의해 오해되었다. 그럼에도 그러한 오해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밀러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기초들이 도식적으로 제시되어 있던 하박국의 두 거룩한 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1843년 도표에 대하여 그것이 주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다고 영감이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주님께서서는 내게 1843년 도표가 그분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그 어떤 부분도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그 수치들이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임을 보여 주셨다. 또한 그분의 손이 그 위에 있어 몇몇 수치에 있는 오류를 가리셨기에,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때 나는 'Daily'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 연합이 있었을 때에는 거의 모두가 'Daily'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1844년 이후 혼란 속에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일.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밀러가 모은 진리들은 주께서 인도하신 것이었고, 1843년 도표에 대한 승인에는 'the daily'가 이방주의를 가리킨다는 밀러의 이해가 옳다는 것이 영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히브리어 단어 'tamid'는 'the daily'로 번역되어 다니엘서에 다섯 번 나오며, 언제나 이방주의와 그 뒤를 잇는 교황주의라는 두 황폐케 하는 권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밀러가 "the daily"를 이교의 상징으로 이해한 것은 그가 사용한 예언적 틀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는데, 이교 다음에 교황권이 이어지는 순차적 관계가 그가 이해하도록 인도된 모든 예언들을 정렬하는 데 있어 그가 삼은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끝의 때’, 곧 1798년에 다니엘서의 봉함이 풀렸고, 화이트 자매가 재림 운동의 ‘중심 기둥’이자 ‘기초’로 지목한 핵심 본문은 다니엘서 8장 14절이었다.

“다른 모든 성구들보다도 무엇보다 먼저 재림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이 되었던 성경 구절은,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선언이었다. [Daniel 8:14.]” 『각 시대의 대쟁투』, 409.

14절은 13절에 대한 답이며, 그 답은 질문의 맥락 없이는 무의미하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자가 말하고 있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한 자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범죄에 관한 그 이상이 어느 때까지이겠으며, 성소와 군대가 짓밟힘을 당하도록 내버려질 것인가?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라.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13, 14.

이 두 구절은 1798년 ‘끝의 때’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릴 때 나타난 지식의 증가를 상징한다. 13절은 밀러가 자신의 예언적 모델을 세우는 근거로 삼은 두 가지 황폐케 하는 권세를 지목한다. 밀러는 13절의 ‘the daily’를 이교주의로, ‘transgression of desolation’을 교황주의로 규정하였다. 천사들이 밀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그 예언적 모델이, 1798년에 역사 속에 도래한 지식의 증가를 대표하는 그 두 구절 속에서 식별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밀러는 예언의 무대에 다음으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권세를 보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나는 두 뿔 가진 짐승이 용의 입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권세가 그의 머리에 있었으며, 칙령이 그의 입에서 나올 것임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음녀들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 어머니는 딸들이 아니라, 그들과는 분리되어 뚜렷이 구별된 존재였다. 그녀의 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녀의 딸들, 곧 개신교 분파들이 다음으로 무대에 올라 어머니가 성도들을 박해할 때 가졌던 바로 그 마음 그대로 행동했다. 나는 어머니의 권세가 쇠퇴해 온 반면 딸들은 성장해 왔고, 머지않아 그들이 한때 어머니가 행사했던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을 보았다.” 스펀딩과 매건, 1.

밀러가 세 번째 권세를 보지 못했다는 점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 밀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교 로마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교황 로마로 규정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한 그의 적용 또한 교황주의라는 두 번째 황폐케 하는 권세를 넘어 이어지는 예언적 역사를 보지 못한 탓에 결함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밀러는 다니엘의 예언에서 로마의 권세를 식별할 때 그것을 두 단계로 나타나는 하나의 권세로 취급했다. 그것은 당시에든 지금도 정확한 적용이지만, 그로 하여금 성경 예언의 왕국들을 로마로 대표되는 네 번째 왕국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로마라는 네 번째 왕국이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 식별했지만, 교황 로마가 또한 그 뒤에 여섯째 왕국이 뒤따를 다섯째 왕국이라는 점은 보지 못했다.

다니엘 2장에서 밀러주의자들은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의 요소들을 넷째 왕국과 결합시켰다. 기본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적용은 옳았지만 불완전했다. 이는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대한 첫 언급이 마지막 언급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며,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항상 처음으로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연속된 두 왕국의 구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밀러는 요한계시록 12장이 이교(용)를 지목하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을 교황권(짐승)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을 배도한 개신교(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했다.

밀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세 개의 연속적인 왕국으로 보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의 예언적 논리에 따라 이 두 장이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가지 권세에 대한 연속적 묘사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밀러에게 주어진 빛은 그의 세대에 완전한 빛이었고, 그의 세대는 그 빛으로 시험되었다.

세 가지 황폐하게 하는 세력(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빛은 1989년 '끝의 때'에 Future for America에 주어졌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성취로 소련이 붕괴하면서 봉인이 풀린 다니엘서의 구절은 셋째 천사의 빛이었고, 반면 밀러는 첫째 천사의 빛을 받았다.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은 Future for America 운동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으로 여겨졌고, 다니엘 11장 40절은 그 빛을 요약한다. 이는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이 밀러파 운동에서 봉인이 풀린 빛을 요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마지막 때에 남쪽의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며, 북쪽의 왕은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바람처럼 그를 치러 올 것이다. 그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 홍수처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다니엘 11:40.

그 구절은 1798년 "끝의 때"에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에서 시작된 전쟁을 지목한다. 남방 왕은 그해에 교황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무신론적 프랑스를 가리켰다. 그 구절에서는 교황권이 북방 왕으로 나타난다. 예언적으로 1798년에 프랑스는 다니엘서 7장의 열 왕국 가운데 십분의 일에 해당했다. 그 열 왕국은 이교 로마를 상징하며, 이교 로마는 용을 상징한다. 교황권(북방 왕)은 짐승을 상징한다. 그 구절은 구절의 시작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북방 왕(교황권)이 결국 남방 왕(무신론의 왕)에게 보복할 것임을 지적한다. 교황권이 보복했을 때, 무신론의 왕은 프랑스라는 국가에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연합체로 옮겨갔다. 프랑스는 한 나라였지만, 그 구절에서 교황권이 남방 왕에게 보복할 때 남방 왕은 "countries"로 식별되었는데, 구소련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북방의 왕(교황권)이 반격했을 때, 그 세력은 "병거", "기병", 그리고 "많은 배"를 동원했다. 병거와 기병은 군사력의 상징이며, 배는 경제력의 상징이다.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교황권과 불경한 동맹을 맺은 세력은 미국이었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미국의 두 가지 강점이 무력과 경제력에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가 교황권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그 표가 없이는 사고팔지 못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그 표가 없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십절은 용(남방의 왕), 짐승(교황권), 그리고 거짓 선지자(미국)를 직접 지목한다. 1989년의 '종말의 때'를 규정하는 기초 구절은, 밀러주의 운동의 기초 구절들이 이교주의에 이어 교황주의라는 두 가지 황폐케 하는 세력을 식별했던 것처럼,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가지 황폐케 하는 세력을 식별한다.

이 구절은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의 전쟁으로 시작한다. 구절의 시작(1798)에서는 남방 왕이 우세하지만, 이어서 북방 왕이 반격하여 남방 왕을 이긴다. 구절의 시작은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전쟁을 드러내며, 구절에 담긴 메시지의 끝부분에서도 같은 전쟁이

묘사되지만 결과는 반대다. 시작은 1798년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마지막의 전쟁은 1989년의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기록된 증언 안에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이라는 서명을 담고 있다.

그 절이 나타내는 실제 역사는 1989년 소련의 붕괴를 지나 사십일 절의 일요일 법령에까지 이어진다. 일요일 법령에서 현대 바벨론의 삼중 연합은 일련의 급속한 사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십 절은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가 가해지고 두로의 음녀가 잊혀질 때 시작된다. 그 절이 대표하는 역사는 사십일 절의 일요일 법령에서 완전히 끝나는데, 거기에서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두로의 음녀가 기억된다. 시작과 끝의 표식은 그 절의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절이 대표하는 전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 절은 예언적 틀을, 단순히 이교(용)와 교황권(짐승)에만 근거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가지 황폐케 하는 권세의 구조로 규정한다.

밀러의 예언적 틀은 하나님의 조사 심판의 도래를 선언했고, Future for America의 예언적 틀은 하나님의 집행 심판의 도래를 선언한다. 1989년 '끝의 때'에, 소련의 붕괴로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봉인이 풀리면서 세 단계의 시험과 정결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1798년에 봉인이 풀린 올라이 강의 이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밀러가 이교주의와 교황주의만 보았고 배도한 개신교는 보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 고찰은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 험난한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세상은 전쟁의 기운으로 들끓고 있다. 머지않아 예언에서 말한 환난의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 이 예언의 성취 가운데 일어난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삼십째 절에서는 '30절부터 36절까지 인용됨'이라고 하는 어떤 권세가 언급된다.

"이 말들이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들이 벌어질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번호 13, 394.